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평일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수녀님, 환영합니다.



이민자 미란다 수녀님께서 본당에 새로 오셨습니다. 구로3동 본당을 위해 애써주실 수녀님을 환영하며, 수녀님께서 영육 간에 늘 건강하시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울뜨레아	2월 19일(일), 11:40	강당
성체분배자회	2월 26일(일), 교중 미사 후	성체조배실
성모성심회	3월 4일(토), 17:30	강당

● 알림

- 다음 주(2월 26일)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사형제도 폐지 법안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 운동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양식은 성당 입구 책상 위에 비치)

● 재의 수요일 안내 : 2/22(수)

- 회개와 은총의 시기인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이며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육재(만14세부터)와 단식재(만18세~60세 전까지)를 지킵니다.
- 성지가지를 가지고 계신 가정은 성전입구 수거함에 2/19(일)까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시간 및 재의 예식 안내

새벽 06:30 저녁 7시

● 회의

- 사목협의회
 - 일시 : 2월 23일(목), 19시 40분
 - 장소 : 강당

● 교육 / 강좌

- 레지오 전단원 교육
 - 대상 : 레지오 단원(일반 신자도 참석 가능)
 - 일시 : 2월 24일(금), 저녁 미사 후
 - 장소 : 본당 대성전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본당 동유럽 성지순례 모집

- 순례기간: 2023.4.19.(수)~4.27(목) 8박 9일
- 순례나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 순례비용: 약 395만원
- 모집인원: 총 35명, 선착순 마감
- 문의: 한희숙 유리안나 010-3053-3315

●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1월 전입)

- 일시: 2월 26일(일), 교중 미사 후
- 장소: 주임신부님 사무실
- * 각 구역·반장님은 연락하시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1구역 2반	김일환	보나벤투라	춘천교구/초당
2구역 3반	오경숙	아셀라	서울대교구/구로2동
14구역 2반	김준섭	도미니코	춘천교구/포천
	박하늬	세실리아	서울대교구/영동
18구역 2반	이남식	요셉	서울대교구/당산
23구역 4반	황옥자	아가다	수원교구/상대원

● 성시간 및 성체강복

- 일시: 3월 3일(금), 저녁 미사 후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3월 4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2023년 첫영성체 교리 안내

- 대상: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3~6학년 어린이(2023학년)
- 일정: 3/4~6/10, 첫영성체: 6/11(일)
- 부모님 첫 모임: 2/25(토) 17:00, 소성전
- 교리: 소성전 교육관 (토, 14:00~15:30)
- 신청접수/접수처: 2/5~2/18까지, 사무실(평일 접수)
- 문의: 김국화 교사 010-5336-2802(문자로 문의)

● 다음 주일(2/2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9구역	청소	18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2월 8일 ~ 2월 14일)

교무금	8,488,000원
주일헌금	4,223,000원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2차 헌금	2,916,500원
박홍식10만원 노응만50만원 서만심 6만원	
심진보10만원 서영준10만원 김희영50만원	
신종구 5만원 김○○20만원 김형준 5만원	
한익수100만원 익명 3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설	복사	독서
2/19	이영민	조흥환	김진수
2/26	최경희	신종구	도현만
			김덕영
			구민서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월 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2/19	장인홍	오광운	최창열	황태영
2/26	최승일	이운영	옥윤필	김광수
				김인기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전쟁과 사형

255. 특히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해결책으로 비칠 수 있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릇된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국가와 국제 사회의 구조 안에 새로운 파괴 요인들만 추가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과 사형입니다.

전쟁의 불의

256. “악을 꾸미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 있지만, 평화를 권유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해결책을 찾는 이도 있습니다. 전쟁은 흔히 “관계의 왜곡, 패권 장악의 야망, 권력 남용, 타인에 대한 두려움, 다양성을 장애물로 보는 시각으로 부추겨집니다.” 전쟁은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끊임없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더디게 밝아 온 평화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지만, 이 평화의 여정은 좋은 열매도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257. 전쟁 확산의 조건들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기에 저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전쟁은 모든 권리의 부인이고 비극적인 환경 침해입니다. 모든 이를 위한 참으로 온전한 인간 발전을 바란다면 국가들과 민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법치를 보장하고, 참된 기본법 규범인 「국제 연합 헌장」에 규정된 대로 끊임없이 교섭과 조정과 중재에 의지해야 합니다.” 국제 연합이 설립된 이후 75년 동안 그리고 이 새 천년기 초반의 20년 경험을 통하여, 국제 규범들의 충실한 적용이 실효를 거두고 있고 이에 대한 그들의 이행 미비는 유해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투명하고 성실하게 존중되고 적용되는 「국제 연합 헌장」은, 정의의 의무 준거점이자 평화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그릇된 의도를 위장해서도 한 국가나 한 집단의 개별 이익을 세계 공동선 보다 우선시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규범이 유리할 때에는 이용했다가 불리할 때에는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간주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힘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여 사회, 가장 힘없는 이들, 형제애, 환경, 문화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국 세계 공동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떠 안겨 줄 것입니다.